

올림픽 대체사업 없어 국비 6조시대 끝

도, 내년 5조2000억 목표
국책사업 부재 땀 '가시밭'

강원도국비 확보액(단위:억원)

2015년	→	6조 712억
2016년	→	6조 3028억
2017년	→	6조 572억
2018년(목표)	→	5조 2000억

3년 연속 국비 6조원 시대를 열었던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마땅한 대체사업을 찾지 못해 내년에 1조원 가까이 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강원도는 올림픽시설 사후관리를 포함해 재정부담만 가중 지역발전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6조 572억원보다 8500여억원이 줄어든 5조 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비 6조원 시

대를 열었던 도는 3년 연속 6조원 이상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목표를 크게 낮춰잡았다. 국비 목표액이 대폭 줄어든데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적이다. 그동안 경기장과 진입도로, 철도 등을 올림픽 준비를 위해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올림픽에 투입되는 국비사업이 모두 끝나면서 내년 국비 목표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됐다. 도에 따르면 올해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올림픽 관련 예산

은 1조 2700억원이다. 경기장건설 등 올림픽 관련 직접 예산이 3300억원, 원주-강릉철도 등 각종 SOC 사업이 9400억원이다. 올해 국비 확보액에서 이들 사업비를 제외하면 내년 국비 확보 가능액이 4조 7872억원대로 떨어진다. 도는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내년에 최대 5조 2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올림픽을 대체할 대규모 국책사업이 없어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오인 ▶관련기사 5면

올림픽 예산 지원 올해 종료 대회 후 마이너스 성장 우려 도, 사업 발굴단 구성·운영

내년에 강원도에 투입되는 국비가 1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대체할 새로운 국책사업의 조기 발굴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강원도의 연간 지역내총생산(GRDP)이 40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국비가 1조원만 빠져도 GRDP는 2.5% 감소한다. 자칫하면 올림픽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

강원도는 올림픽에 힘입어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국비 6조 71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16년 6조 3028억원, 2017년 6조 572억원 등 3년 연속 국비 6조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경기장과 도로, 철도 등에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면서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올림픽 관련 국비 지원이 대부분 종료된다. 도가 파악한 결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국비 사업비만 1조 2700억원에 달한다. 도가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 2000억원으로 잡았

지만 올해 종료하는 사업을 대체할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하루 아침에 내년 국비 확보액이 4조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도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41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비는 총 1115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 신규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를 포함, 지역개발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SOC의 경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가 추진 중이지만 사업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최문순 지사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비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부족을 지적하며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체할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신성장동력)발굴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식·에너지와 관광·문화, 농림·축산, 환경·산림, 건설·교통, 해양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은 올림픽 이후 도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게 된다. 김명선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대규모 국책·전략사업을 발굴·유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취임식 2일 개최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취임식 이 2일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7층 두베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최삼규 제26대 협회장의 이임사와 유주현 제27대 신임 협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취임식에는 정·관계 인사와 협회 이사·대의원, 각급 위원회 위원, 주요 건설사 대표, 건설 유관기관(단체)장 등 3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LH, 올 11.9兆 공사·용역 발주계획... 공공부문 최대

건설공사 11조4900억... '중심제' 43% 차지

300억 이상 대형공사가 75%
3분기 집중적으로 집행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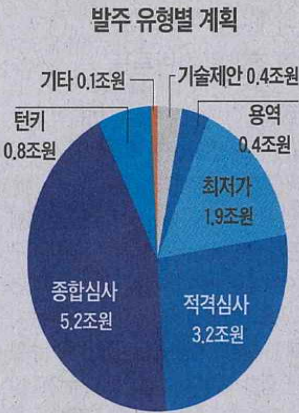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총 921건, 1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이는 올해 국가 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틀어 최대 규모다.

1일 관련연계에 따르면 LH는 건설공사(638건, 11조4900억원)와 설계용역(283건, 4400억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발주계획'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민간공동 개발사업, 리츠(REITs) 등 LH의 자체 사업비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방식 다각화를 대폭 확대하고 뉴스테이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사 가운데 발주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93건, 8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사 집행액의 75%를 차지했다.

입찰방법으로 보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는 64건, 5조2000억원으로 전



체의 43%를 차지하면서 대표적인 시공사 선정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 적격심사낙찰제(548건, 3조2000억원), 최저가낙찰제(20건, 1조9000억원), 기술형 입찰(6건, 1조2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과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각각 7조2000억원과 2조원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외 전기·통신공사가 1조7000억원, 조경공사는 400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5조8000

LH 2017년 주요공사 발주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건명	발주금액	발주시기
조성공사	양산사승 조성공사	2342	9월
	세종 6-3생활권 조성공사	834	11월
	고덕국제화 2-3공구 조성공사	550	11월
	대구도남 조성공사	450	10월
	파주운정3지구 대지조성(5공구)	433	10월
토지사업	도로		
	세종 금빛노출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4523	1월
	세종 들머교 및 6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2092	7월
	동탄 국지도84호선(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	1269	8월
	세종 금강보행교 건설공사(T/K)	1091	3월
시흥목감 목감~수암 도로확장공사	396	4월	
주택사업	대구연경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공분/공임, 1,958호)	3082	8월
	청주모충 아파트 건설공사(공분/공임, 1,692호)	2340	7월
	충북혁신 B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공임, 1,323호)	2082	8월
	화성봉담2 S-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공임, 1,458호)	2037	8월
	청주동남 A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공임, 1,081호)	1701	10월
	의정부고산 S-5블록 아파트 건설공사(1,215호)	1698	2월
	고양항동 A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공분, 1,153호)	1626	4월
	익산평화 1블록 아파트건설공사(공분, 998호)	1587	10월
	김해울하2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국임, 1,442호)	1550	3월

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시가 1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주시기별로 보면 상반기는 3조3000억원에 불과하고 3분기에 다수가 집중된 게 특징이다. LH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따라 최대한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부문 최대 규모 공사·용역 발주로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각종 정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한기자 jobze@